

‘타고투저’의 부활

2024 프로야구 158경기 투타지표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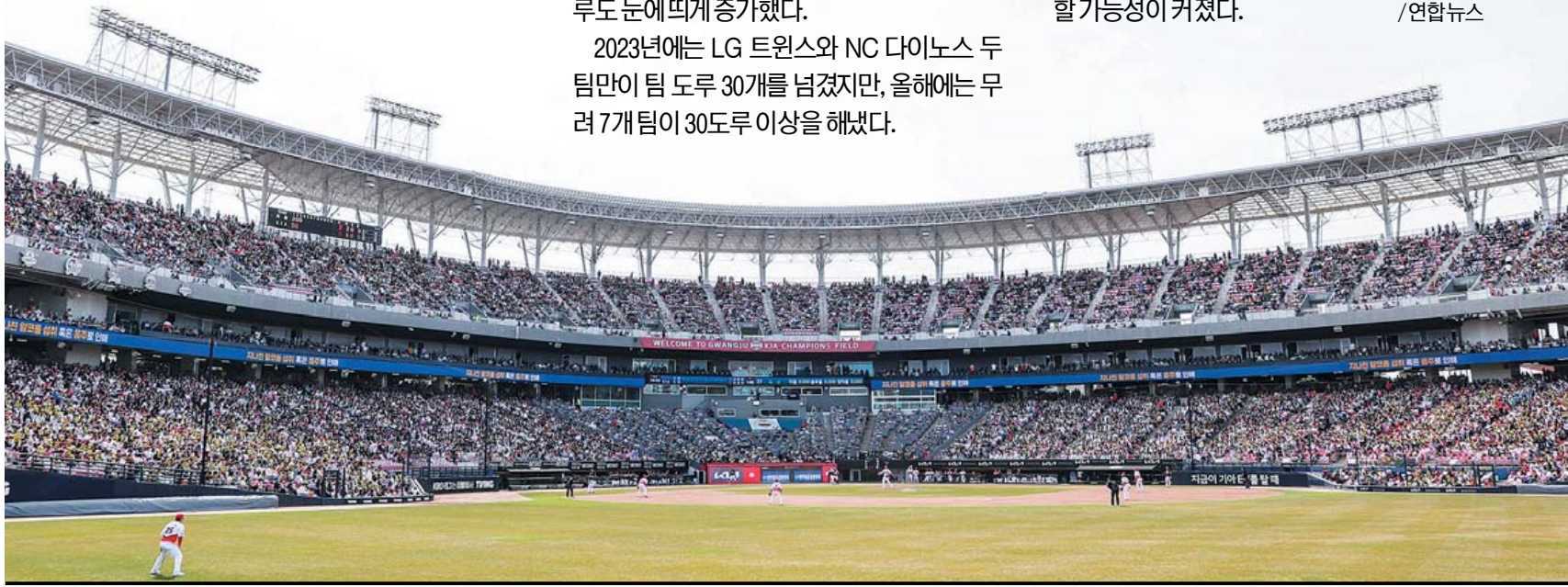
전년 동기기간 대비 홈런 61%·도루 29% ‘↑’, 팀 타율 0.255→0.274
팀 평균자책점 3.88→4.83...굳건한 선발진의 힘, 순위 경쟁 ‘관전’



올해 프로야구에서 ‘타고투저’ 현상이 확실하게 부활했다. 3월23일 정규리그 개막 후 4월30일까지 두 달 간 치른 158경기의 투타 지표를 작년과 비교했더니 팀 타율, 팀 홈런, 팀 도루는 동반 상승했다. 이에 반해 팀 평균자책점은 1점 가까이 나빠졌다. 팀 타율은 0.255에서 올해 0.274로 2분 가까이 올랐다. 팀 홈런은 188개에서 302개로 61%, 도루는 225개에서 291개로 29%나 늘었다. 매서운 방망이에 팀 평균자책점은 3.88에서 4.83으로 치솟았다. 자동 투구판정시스템(ABS)의 직접 영향권

인 투수의 볼넷 허용(1천164개→1천169개)과 탈삼진(2천328개→2천391개) 수치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홈런의 증가는 시즌 초반의 큰 화두다. 벌써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팀 홈런 30개 이상을 쳤다. 지난해같은 경기수를 치르는 동안 팀 홈런 30개를 넘긴 팀은 하나도 없었다. 홈런왕 출신 멜로하스 주니어를 재영입한 kt wiz의 팀 홈런은 작년 19개에서 올해 37개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로하스는 홈런 10개를 쳤다. ‘홈런 공장’ SSG는 최정과 한유섬(이상 11개) 홈런 공동 1위 쌍포를 앞세워 가장 많은 대포 39발을 쏘았다. 역동적인 주루를 권장하고 선수들의 부상을 막고자 베이스 크기를 기존 15제곱인치(38.1cm)에서 18인치(45.72cm)로 키운 덕분에 도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 두 팀만이 팀 도루 30개를 넘겼지만, 올해에는 무려 7개 팀이 30도루 이상을 해냈다.

한 자릿수 도루에 머문 팀은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이상 9개) 두 팀뿐이다. 도루할 환경이 개선되자 번트를 달 일도 줄어들었다. 희생번트는 지난해 124개에서 올해 87개로 감소했다. 타격 지표의 향상은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투구 궤적을 추적하고, 컴퓨터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ABS에서 타자들이 투수들보다 잘 적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에 공 하나마다 원초적으로 예민한 투수들보다 타자들은 상대적으로 둔감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스트라이크와 비슷한 공이 들어오면 더욱 공격적으로 스윙한 결과다. KBO 사무국이 의뢰한 공인구 반발 계수는 1, 2차 수시 검사에서 모두 기준선인 0.4034-0.4234를 충족했다. 다만,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공인구를 주문 생산하는 스페리크 지역의 날씨가 예년보다 건조해 반발력에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금처럼 공격이 기승을 떨치는 추세라면, 굳건한 선발 투수진을 보유한 팀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여수시, 전남장애인체육대회 7연패 ‘위업’



1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에서 1-8위 입상 시·군 관계자들이 순위를 수여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영광서 하나된 전남장애체육인 스포츠 대축제...내년 장성 재회 기약 아쉬운 폐막

육상 3관왕 황상준 대회 MVP...장성군 ‘장려상’·영암군 ‘모범선수단상’

전남 장애체육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1일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위대한 영광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장애인체전에는 도내 22개 시군 1만6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여수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7연패를 달성했다. 여수시는 육상, 축구 등 19개 종목 291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총 5만701점을 획득해 순천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트랙 종목에 출전한 남자 400m, 800m, 1,500m에서 3관왕을 차지한 영광군 황상준 선수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장성군, 모범선수단상은 영암군, 성취상은 영광군이 영예를 안았다. 개최지 영광군은 대회 기간 영광스

포티움 실내체육관 주변에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뉴스포츠(보치아, 한궁) 체험부스와 스포츠재활체험관, 휠체어보장구 수리센터, 정보통신보조기 등 30여개의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홍보 등 지역민과 참가선수단의 소통과 상생의 자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영광군은 이번 체전을 앞두고 체전

TF팀을 구성해 우선 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경기장 편의시설 관리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육군 31보병사단 8332대대에서도 장병 30여명이 자원봉사에 지원해 원활한 경기운영을 도왔고, 영광FC 소속 학생 선수 40여명도 대회 운영에 힘을 보탰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해 영광 군민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 대회는 내년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 개최지인 장성군으로 전수됐다. /박희중기자

AI페퍼스, 최대어 장위 ‘낙점’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전체 1순위’ 품고 높이 보장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전체 1순위로 장위(29)를 낙점했다.



AI페퍼스는 1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여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추첨에 따라 1순위 지명권을 얻은 후 중국의 미들 블로커 장위를 호명했다. 장위는 196cm 신장에 속공은 물론 이동 공격, 블로킹 등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대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서재원 등을 GS칼텍스로 보내며 미들 블로커 공백이 생긴 AI페퍼스는 장위를 품으며 약점으로 지적됐던 높이를 보강했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IBK기업은행의 선택은 178cm의 중국 세터 천 신통이었다. 이어 3순위 한국도로공사는 카자흐스탄 아웃사이드 히터 유니에스카 로 블레스 바티스타(31·189cm)를, 4순위 지명권을 지닌 흥국생명엔 중국의 미들 블로커 황루이레이(28·196cm)를 호명했다. 5순위 현대건설과 6순위 정광장은 각각 위파위 시롱(25·174cm·태국), 메가왓티 퍼티위(25·185cm·인도네시아)와 재계약을 택했다. 마지막 지명권을 행사한 GS칼텍스는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 스테파니 와일러(28·195cm·호주/독일)를 선택했다. 이번 아시아쿼터는 기존 동아시아 4개국, 동남아시아 6개국(총 10개국)이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대상 국가를 아시아배구연맹(AVC)에 등록된 64개 전체 회원국으로 문호를 넓혔다. 그 결과 중국 출신 선수들이 3명이나 뽑혀 다음 시즌 프로배구 무대에 선다. 다음 시즌 새로 V리그에서 뛰는 아시아쿼터 선수는 연봉 12만 달러, 재계약 선수는 15만달러를 각각 받는다. /박희중기자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1일 열린 UCL 준결승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7분 호드리구와 볼을 다루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철기둥’ 김민재 ‘최악의 날’

UCL 준결승 1차전 ‘두 번의 치명적 실수’...투철 감독 작심 비난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철 감독이 승점 3을 날려버린 ‘철기둥’ 김민재를 ‘작격’했다. 뮌헨은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역전승을 거두는 듯했으나 후반 38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줘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김민재가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후반 37분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은 호드리구를 잡아채며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명백한 파울을 범하고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에 대해서도 투철 감독은 “계속 안쪽에 잘 있다가 비니시우스가 패스할 때 쓸데없이(앞으로 나오며) 공간을 내주는 실수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 방어 능력에 스피드를 겸비한 김민재는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튀어나오며 패스를 차단하는 플레이를 즐겼는데, 이날 투철 감독은 이에 대해 “너무 탐욕스럽다”는 표현을 3차례나 써가며 대놓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날 김민재의 실수가 없었다면 뮌헨은 12년 만에 UCL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승리하며 ‘천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다. 평소 솔직한 화법의 투철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잘못을 매섭게 지적했다. 독일 매체 슈포르트1에 따르면 투철 감독은 “김민재는 수비할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공을 따낼 수 있을 땐 괜찮지만, 아니라면 그 래션 안 된다”면서 “김민재는 너무 탐욕스럽다. 공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없다. 너무 쉽게만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에 대해서도 투철 감독은 “계속 안쪽에 잘 있다가 비니시우스가 패스할 때 쓸데없이(앞으로 나오며) 공간을 내주는 실수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 방어 능력에 스피드를 겸비한 김민재는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튀어나오며 패스를 차단하는 플레이를 즐겼는데, 이날 투철 감독은 이에 대해 “너무 탐욕스럽다”는 표현을 3차례나 써가며 대놓고 비판했다. /연합뉴스